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자 지리산 화엄사 직원들이 기존의 매표소에서 개별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탐방객들은 관람료를 사찰 입구에서 걷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리산=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찰, 새해 벽두 관람료 기습 인상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무색... 탐방객들 불만 폭발

“매표소 절 앞으로 옮겨라” 비난 봇물

국립공원 입장료가 지난 1일 폐지되면서 공원 내 각 사찰이 개별적으로 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사찰 관람료)를 징수하자, 탐방객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탐방객들은 특히 상당수 사찰이 매표소 운영 등을 이유로 관람료를 30% 가까이 인상하는 바람에 입장료 폐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2일 오전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 지난해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사무소가 운영했던 이곳에는 천은사 직원들이 파견돼 관람료를 징수했다. 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성인 1인당 1천600원이다.

하지만 탐방객 대부분은 “노고단으로 갈 건데 돈을 내야 하나?”며

짜졌다. 직원들은 “지나해와 똑같이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내야 한다”며 양해를 구하느라 바빴다.

탐방객들은 마지못해 돈을 내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사찰을 가지 않고 노고단 등산이나 전북지역으로 가는데 왜 관람료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천은사 매표소를 통과한 탐방객은 280여 명. 이 중 10%가량이 천은사를 찾았을 뿐 나머지는 노고단으로 향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정했다.

화엄사 매표소는 지난해까지 2천200원이던 관람료를 이날부터 3천원으로 인상했다. 화엄사 측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매표소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인건비

◇문화재 관람료 인상현황 (1월2일 시행, 성인 1인기준/원)

국립공원	사찰명	종전	현행	비고
지리산	화엄사	2,200	3,000	36.4% ↑
	연곡사	1,600	1,600	동결
	천은사	1,600	1,600	동결
내장산	내장사	1,600	2,000	25.0% ↑
	백양사	1,800	2,500	38.9% ↑
월출산	도갑사	1,400	2,000	42.9% ↑

포함, 1년에 9천만~1억원이 들기 때문에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내장산 내장사도 같은 이유로 관람료를 1천6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고, 백양사는 1천8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렸다. 월출산 도갑사는 지난해 1천400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천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사찰이 관람료를 400~800원(25.0~42.9%) 인상하자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덕을 거의 보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는 1천600원이었다.

가족 8명과 지리산을 찾은 정은숙(여·39·경남 창원시)씨는 “화엄사를 잠깐 들렀다 천은사 쪽으로 노고단을 갔는데, 양쪽 모두서 관람료를 받는 바람에 2만원이 넘게 들었다”며 “사찰이 공원 입구에서 요금을 걷는 것은 합리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천은사 관계자는 “매표소가 있는 곳은 사찰 소유의 땅이고, 등산로 곳곳에는 사찰이 지은 암자가 많이 있다”면서 “탐방객들이 전통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大法 “1만원 받은 교통경찰 해임 정당”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다라고 경찰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5년 6월 신호위반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담뱃값으로 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뒤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연습스

승용차 보관 1억원 털려

여수 D에너지 사원 허모(30)씨는 2일 오후 1~2시 사이에 여수시 문수동 농협 옆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이 털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허씨는 경찰에서 “돈을 인출하고 가보니 운전석 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었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황금돼지해, 일 잘 풀리겠지 뭐..”

점(占)집 ‘썰렁’

새해만 되면 복작거리는 철학원 등 점(占)집이 올해 썰렁하다. 점 집이 밀집해 있는 광주 서구 월산동 등의 경우 줄을 잇던 고객들의 발길이 뜸 끊긴 채 개점 휴업상태다.

‘보연사’ 김승연(여·45)씨는 “인터넷 운세 등 때문에 매년 손님들의 숫자가 줄어들지만, 올 신년처럼 손님이 없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집 불황은 정해년(丁亥年)인 2007년이 ‘60년 만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는 소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황금돼지해’라서 굳이 신년 운세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주부 장모(40)씨는 “2007년이 좋은 해라고 하는데 괜히 점 집을 찾았다가 좋지 못한 소리라도 들으면 한 해의 시작이 더러워질 수 있어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신년 운세를 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공격적인 ‘운세’ 마케팅도 점집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신년운세’ 무료 서비스에서 일대일 상담까지 사주·궁합·토정비결 등 다양한 운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타로 카드 점’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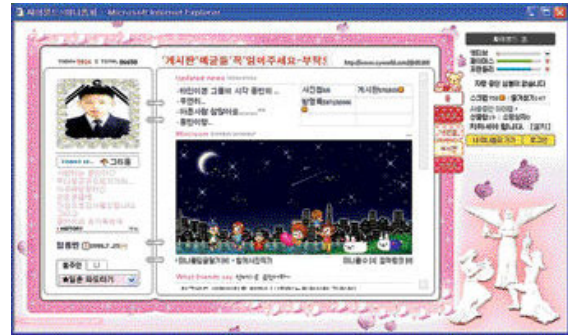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침 (7018) 김중두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순천경찰 재수사 나서



1년 7개월 전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본보 구랍 30일자 7면)과 관련, 순천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순천경찰은 2일 “아버지 임모(49·순천시 용당동)씨가 집단 따돌림 때문에 막내 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S중학교 3학년이었던 임씨의 아들(16)은 지난 2005년 5월17일 오전 “교우·성적·학업·진로 문제로 고민해 왔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경찰은 당시 자살 동기를 성적 비관으로 결론, 사건을 일단락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1년 넘게 아들의 친구 30여 명을 찾아다니던 끝에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구랍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자살 동기를 명백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는 ‘왕따를 당했다’는 내용보다는 가정형편이나 성적비관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만큼 당시 담임 교사와 학생부장, 반장 등을 소환해 재조사를 벌여 폭행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아버지 임씨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진실하게 잘못을 뉘우친 아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화가 나는 것은 아직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학교 관계자들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숨진 임군의 자살이 ‘왕따’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5년 5월 28일 아버지가 만든 아들의 추모 홈페이지(http://www.cyworld.com/ijb05180·사진)에는 2일 현재 8만여 명의 네티즌들이 찾아와 애도를 표하고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토론했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평등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평등선 도시) 4+1평형 2+1평형 3+1평형
 수련선도시 피오레
 문의전화: 062-367-9000

외국인이 교회 악기 훔쳐

광주 서부경찰은 2일 광주시 서구 세하동 모 교회의 예배당에서 전자건반 악기(synthesizer)를 훔쳐려 한 카자흐스탄 노동자 I(46)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동거녀 폭행한 ‘현대판 처용’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2일 자신의 동거녀를 마구 때린 백모(2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1일 오전 9시30분경 동거녀 이모(25)씨 원룸 안에서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 등을 마구 때렸다는 것.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들과 새해맞이 술자리를 한 뒤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니 2개월 동안 동거한 애인이 모르는 남자와 속옷 바람으로 깨어고 자고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주) 현대건설
 1688-7577
 고객센터 02-518-7600

광주송파상권

상해/상해(소주)	3억	799,000
상해/광주/소주/무석	4억	499,000
홍성/상천	2억	800,000
홍성/바카오/상천	4억	880,000
신대/상천/부유/대우	4억	329,000

광주 (주) 현대건설
 12.21 ~ 2.11

상해/상해(소주)	3억	799,000
상해/광주/소주/무석	4억	499,000
홍성/상천	2억	800,000
홍성/바카오/상천	4억	880,000
신대/상천/부유/대우	4억	329,000